

애경산업 '리큐 진한겔 실내건조 미니파워캡슐' 선봬

애경산업이 '리큐 진한겔 실내건조 미니파워캡슐'을 출시했다. 초고농축 세제를 담아 음식물 얼룩 및 미세먼지 제거 등 강력한 세척이 가능한 캡슐 세제다. 특히 꿉꿉한 냄새의 원인 물질인 섬유 속 피지오염 제거에 탁월해 실내건조에도 빨래 냄새 걱정없이 보송한 세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레몬시트러스 향을 더해 세탁 후 기분 좋은 상쾌함을 전한다.

신세계그룹-인천광역시, 인천 청라 개발 협력 본격화

신세계, 청라에 2만석 야구 돔구장 짓는다

문화공간 겸하는 최첨단 멀티스타디움 추진
스타필드 청라, 2024년 하반기 개장 목표로
서울7호선에 역사 추가로 신설…내년 착공
신세계, 광주·울산 등 광역시와 협력 강화 눈길


신세계그룹과 인천광역시가 인천 서구 청라에 야구 돔구장과 스타필드 청라 건설 및 지하철 역사 신설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4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 | 신세계

신세계그룹이 인천 서구 청라에 야구 돔구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 회사는 24일 인천광역시와 함께 스타필드 청라와 야구 돔구장 건설 및 지하철 역사 신설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프로야구단 SSG랜더스 구단주)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청에서 만나 "청라에 최첨단 돔구장 건설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스타필드와 돔구장 건설은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청라지역을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했다

신세계그룹이 추진 중인 돔구장은 2만 석 규모로 야구경기 관람뿐 아니라 K-팝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역할도 겸하는 최첨단 멀티스타디움이다. 프로야구 144경기 중 홈구장에서 72경기만 열리는 점을 감안해 야구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인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관람관으로 조성한다. 프로야구 경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K-팝 공연, 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 e스포츠 국제대회, 각종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스타필드 청라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쇼핑,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16만 5000m²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체류형 복합쇼핑몰이다.

또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에 스타필드 청라 역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실시 설계(시공 직전 공사방법, 기간, 비용 등을 세부조사해 결정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 초일류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교두보가 되고, 신세계그룹이 인천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이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청라 돔구장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인천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 돔구장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역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광주광역시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첫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광주(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기존 광주신세계는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인 광주신세계 Art&Culture Park(아트 앤 컬처 파크·가칭)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또 23일에는 울산광역시 우정혁신도시에 쇼핑몰과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최고 83층 규모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쇼핑몰 등 판매시설(3만8250m²), 문화·집회시설(3000m²), 근린생활시설(1770m²) 등이 들어서며, 지상 83층 규모 오피스텔 2개 동(1573실)이 조성된다. 고층의 오피스텔 2개 동을 저층의 판매시설이 연결하는 형태로 건립되는데, 이는 울산의 영문 첫 글자인 알파벳 'U'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울산 최고층 건물이 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졸업은 새로운 출발점"…한국방송통신대, 2022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성료

학사학위·석사학위 총 1만1677명 졸업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 진행
방송대 TV 채널 OUN·유튜브서 생중계



24일 한국방송통신대 2022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고성환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방송통신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총장 고성환·이하 방송대)가 2022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24일 진행했다.

2022년도 후기 학위 수여 대상자는 학사학위 1만 1226명(프라임칼리지 학사 99명 포함), 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451명 등 총 1만1677명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졸업증서와 함께 학과최우수상, 평생학습상, 공로상, 총동문회장상 및 대표 단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고성환 총장은 축사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밝히면서 "우리 대학에 편입학할 때 (배움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가졌던 겸손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졸업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에 감사함을 가졌으면 한다. 이번 졸업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종로구가 지역구인 최재형 국회의원과 방송대 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 등 교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방송대 2022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은 방송대학TV(OUN) 생중계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방송대 지식+, 방송대 정보+)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됐다. 줌(ZOOM)을 통해 졸업생 50여 명이 실시간으로 졸업식에 참여해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KT&G, '릴 하이브리드 2.0' 볼빅 에디션 라운드2 출시

KT&G(사장 백복인)가 골프용품 브랜드인 볼빅과 컬래버레이션한 '릴 하이브리드 2.0 볼빅 에디션 라운드 2'(사진)한정판을 선보였다.

새로운 색상을 적용한 '릴 하이브리드 2.0'과 볼빅의 컬러볼 '크리스탈 콤비' 3구가 함께 담긴 기프트박스 형태로 구성됐다. 전자담배 기기는 볼빅의 골프공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레드 투 핑크'와 '그린 투 라임' 2종이 출시된다.

권장 소비자가는 9만9000원이며, 릴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움과 온라인 판매처인 '릴 스토어'에서 첫 선을 보였다. 9월 7일부터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시작된다.

양형모 기자



'현대차 EV, 美보조금 제외' 파장
정의선 회장, 해법 찾아 긴급 방미

아이오닉5 등 5개 모델 제외…미 공장 설립 앞당겨


정의선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방미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구체적인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이나 워싱턴 D.C. 등이 유력하다. 이번 출장에는 국내외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미국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며 미국 정관계 인사,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IRA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을 보인다.

아이오닉5와 EV6의 판매 호조로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 순위 2위에 오른 현대차그룹은 IRA 시행으로 전기차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된 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기존 72개 모델에서 21개로 축소됐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전기차 모델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대차가 보조금 없이 테슬라(70%)에 이어 2위(9%)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IRA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이었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하면 2024년 하반기엔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롯데GRS, 롯데리아 라오스 5호점 열어

롯데GRS가 최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롯데리아 5호점(사진)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리아 라오스 5호점은 199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인 루앙프라방 메인 거리에 위치한 시가지 상권에 위치해 있다. 142m² 규모로 수도 비엔티엔에 위치한 4개점에 이어 타 도시 지역 첫 개점이다.

라오스 비엔티엔에 위치한 롯데리아 4개 매장은 전년 대비 약 18%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라오스 SCG(속싸이)그룹과 함께 해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GRS의 베트남 현지 법인 사업도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약 270개의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법인의 상반기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도 매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베트남 현지 법인 및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등의 해외 매장 확대로 K-프랜차이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호텔롯데, 4개 사업부 '법인 홈페이지' 개설

호텔롯데가 호텔, 면세, 월드, 리조트 등 주요 4개 사업부의 소개와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실천 활동 등을 담은 '호텔롯데 법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업부 통합 법인 홈페이지는 호텔롯데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투명한 기업 활동 공개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다 확고히 표명하기 위해 만들었다. 특히,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전략 체계, 주요 활동 등을 수록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